

2023. 5.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 5. 3.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총괄과장

홍 남 기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정 명 이

2133-9805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담 당 자

김 화 진

2133-9808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캠퍼스 안전을 지키는 313명의 대학생 순찰대 활동 시작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 5.2.(화) 16시, 시민청에서 개최
- 9개 대학 313명이 연말까지 캠퍼스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순찰활동 시작
- 자경위-경찰-대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안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과 방법안전교육'을 5. 2.(화) 16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하고 9개 대학 313명의 대학생 순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경위는 발대식으로 대학생 순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방법 안전교육과 순찰장비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제2기 대학생 순찰대는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작년 10월에 처음 참여했던 제1기 대학생 순찰대 5개 대학의 169명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더

욱 반가운 것은 작년 활동으로 ‘캠퍼스 안전 지키기’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된 1기 대학 모두가 이번 2기 모집에도 참여한 것이다.

-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발된 대학은 동국대(캠퍼스 폴리스), 백석예술대(라운 순찰대), 연세대(이글가드), 중앙대(의혈지킴이 규찰대), 한양여대(개나리순찰대)이며
- 새롭게 참여한 2기 대학은 덕성여대(둘리 방위대), 상명대(국가안보학과 순찰대), 서경대(풀잎방범대), 한국체육대(라일락 학생회)이다.

□ 2기 대학생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학기 중 활동할 예정이다며, 주로 야간시간대에 캠퍼스 일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학내 음주·취침 제재 및 계도 △불법 카메라 점검 △범죄예방 인식개선 및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의 임무를 맡는다.

□ 특히 이번 2기 순찰대 활동은 대학별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팀(CPO)과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순찰계획 및 방법에 대한 조언과 격려 △캠퍼스 안팎 범죄 취약 장소 관련 정보공유, △합동순찰 추진 등 학생들과 치안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학교별 순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지난 4. 26.(수), 2기 대학생 순찰대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학생 순찰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관할 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봉(덕성여대), 중부(동국대), 방배(백석예술대), 종로(상명대), 성북(서경대), 동작(중앙대), 성동(한양여대), 송파서(한체대) 생활안전계 담당 경찰관이 참여하였다.

- 자경위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순찰 활동을 위해 작년에 이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방법조끼, 야광봉, 전자 호루라기 등의 순찰 장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과 연말 우수대원 시장 표창과 위원회 감사장 수여로 순찰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취업 등으로 바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대 모집에 참여해준 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라며 “최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율방범대법 시행 기념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4.28.),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4.30.), 그리고 오늘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까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 서울자치경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 사진 1부. 끝.



<대학생 순찰대 단체사진>



<발대식-방법안전교육>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 현장>



<동국대 캠퍼스 폴리스>